



3면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
내수보완에 17.7조 투입"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 지사 '코로나 리더십' 존재감

지지를 전달보다 큰 폭 상승... 전국 4위 기록 긴급 추경 등 첫 타이틀 단 발 빠른 대처 한몫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지율이 전달보다 큰 폭 상승하며 '코로나 리더십'이 빛을 발하고 있다.

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3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송하진 지사는 전달보다 2.5%p 오른 58.9%의 지지율로 전국 시도지사 중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69.7%)로 전달보다 1.4%p 상승했으며,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61.6%)로 전달보다 0.1%p 올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국적 관심을 끈 시도지사

사가 가파른 지지를 상승과 함께 3위~5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달보다 8.8%p 오른 60.6%로 3위를 차지했고 피로 누적으로 쓰러진 권영진 대구시장도 4.9%p 상승한 58.2%로 5위를 기록했다.

송하진 지사는 긴급추경예산 편성과 집행, 재난기금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급, 행정명령대 상시시설에 전북도 자체적으로 확원·교습소 등을 추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첫 타이틀을 단 발 빠른 대처가



지지를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또 해외입국자 접수조사와 입국자 전용버스와 소방차량 등을 활용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임시생활시설 입소 의무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도민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효율성 높은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것이 도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5~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7천명(광역시장도별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방식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포인트, 응답률 4.8%다.

/김진성 기자

전북 로컬푸드 '되레 잘나가'

가정식 증가·학교개학 연기로 전년 대비 매출액 25% 증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1분기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8일 로컬푸드 직매장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30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61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자, 식재료 구입이 증가한 가정에서 시중마트보다 안전성이 담보된 로컬푸드 매장 이용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첨병으로 활약하며 농촌 지킴이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정의 안전한 식재료 제공처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전주, 군산, 김제에 소재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학교급식용 친환경 채소(얼갈이, 상추, 오이, 양파, 감자, 부추 등) 3,500봉지, 7백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남아 도는 학교급식용 친환경 채소를 38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조합원 유무와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판매를 대행해주고 있다.

2020년 1분기 기준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도내 농업인은 1만1,000여명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종사하는 임직원수는 300여명으로 도내 로컬푸드가 농촌경제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에서 지난해 로컬푸드를 찾는 소비자 66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크기, 모양, 신선도) 및 가격, 농산품의 다양성, 안전한 농식품 등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4.0점으로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80.4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해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로컬푸드 직매장을 믿고 찾아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할 뿐이다"며, "도민들께 보답하기 위해 더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오늘부터 감감이 선거전 선관위, 여론조사 공표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외파자, 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복숭아 인공수분해' 8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원들이 복숭아 새 품종 육성을 위한 인공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올해는 과수 꽃눈 개화 시기가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격리지 무단이탈, 완주군 즉시 고발

미안마서 입국... 고의성 판단

전북도는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등 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에서 격리자를 무단이탈한 A씨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1시경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A씨는 오전 5시경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7시경 자전거를 이용하여 외출하여 약 11시간 후인 오후 5시 40분에 자택으로 복귀하여 '앱'으로 두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무단이탈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A씨는 다음 날인 8일 오전 4시 10분경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다시 이탈하여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30분경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지난달 28일에 미안마서에서 입국한 A씨는 29일 음성 관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완주경찰서의 감시 하에 격리 중인 상태이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A씨에 대하여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격리지 앞에 순찰대기하는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